

# 한·일 여대생의 주생활 기거양식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Attitude about the Seating Style in the house by Korean and Jap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안옥희\* / An, Ok-Hee  
정미란\*\* / Jung, Mi-Ra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and trends in changing the seating style in the house, focusing on the behavioral posture.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self-entry questionnaire designed for this study and the sample of 400 in total, 200 cases from Korea and 200 cases from Japan.

The major findings were as the following : The seating style of Korean and Jap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the floor-seating trends in the present condition. But they generally preferred the chair seating in the future. In the present seating style, the chair seating style has included bath, study, dinner, sleep, make-up, rest and family communication in that order by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 the chair seating style has included sleep, study, dinner, make-up, bath, rest and family communication in that order by Japanese. In the future seating style, the chair seating style has included study, make-up, dinner, sleep, bath, family communication and rest in that order by Korean ; the chair seating style sleep, study · make-up, dinner, family communication, rest and bath in that order by Japanese.

키워드 : 기거양식, 한·일 여대생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활양식은 일정 집단의 사람들이 행하는 생활방식으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민족 또는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표준적인 '생활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양식은 연령, 직업, 결혼 여부, 교육정도, 소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sup>1)</sup>. 또한 생활양식의 하위개념으로서 주생활양식은 인간이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하며<sup>2)</sup>, 주생활양식을 공간과의 관련에서 본 생활양식이라고 한 정의도 있으므로 주생활양식은 우리의 주거생활에서 공간이나 가구, 설비, 기기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sup>3)</sup>.

주생활양식의 한 부분인 기거양식은 기거·행동에 관한 것으로 「바닥에 앉는」 생활인가 「의자에 앉는」 생활인가의 문제이다.<sup>4)</sup> 수미다(住田昌二)<sup>5)</sup>는 앉고서는 동작의 기본적인 동작이 기거양식으로,

좌식은 바닥에 직접 앉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동작양식이고, 의자식(입식)은 의자와 소파, 침대 등의 가구를 지지하여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일련의 동작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본에서는 「기거양식」이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체동작방식」이라는 용어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기거양식」을 포함하여 「생활양식」, 「주생활양식」, 「실의 사용방법」, 「공간이용 실태」, 「공간사용 방식」, 「공간이용 행태」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sup>6)</sup>.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양식중 공간, 가구, 생활 등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한·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거양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주생활행위에 따른 기거양식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통

1) Newmark & Tompson, Self, Space & Shelter, New York, Canfield Press, 1977

2) 김미희·이유미, 주생활양식유형과 공동주택내부·외부공간의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9권2호, 1988

3) 장상욱,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6

4) 塚田信, 住生活論, 朝倉書店, 1978

5) 住田昌二, 現代住居論, 光生館, 1984

6) 장상욱, 상계서, 1996

\*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학술박사

\*\*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적으로 좌식 위주의 주생활을 영위하는 민족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나라는 동아시아권 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주생활은 전통적으로 좌식 위주의 생활양식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동아시아에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의 기거양식은 유사점이 많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서구식 주택형태가 일반적으로 보급된 현재에도 온돌의 장판바닥과 다다미라는 일본 고유의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비록 장작을 지피고 구들판을 사용하던 것이 파이프를 이용한 온수난방으로 바뀌고 부엌이나 마루, 거실의 바닥재가 변화 하여도 방만은 장판지의 온돌방이 좋다는 의식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일본 역시 주택평면이 바뀌고 공동주택과 같이 동일한 형태의 평면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방 1개 정도는 다다미방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sup>7)</sup>. 이러한 의식은 서구와는 달리 좌식 위주의 기거양식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선호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렇게 한·일 양국 모두 전통적인 기거양식을 고집하고 있으나, 주택설비나 장비적 요소가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거양식으로는 공간사용에 부조화로운 상태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 다양한 기기의 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좌식 위주였던 기거양식이 입식, 입식과 좌식의 절충형 등 여러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기거양식의 변화는 주생활행위시 신체자세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거공간 계획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거양식에 따라 주거공간에서의 실의 배치, 각 실의 면적, 창고 높낮이, 가구, 설비, 정원의 유형 등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sup>8)</sup>.

장상욱<sup>9)</sup>은 기거양식 변천의 고찰시에는 우리와 기거양식이 비슷한 나라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 기거양식의 흐름에 대한 특징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장래의 기거양식을 예측하고 올바른 주택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생활 기거양식을 파악함으로써 양국의 특성과 상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신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세대 소비자들은 앞으로 모든 소비재와 상품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수요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선호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이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므로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이나 미래 주거유형개발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신세대 소비자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와 기대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sup>10)</sup>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며<sup>\*)</sup>, 관심 또한 높기 때문에 여자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일 여대생의 주생활 기거양식에 대한 실태 및 의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주생활 행위에 따른 기거양식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의 경우는 대구·안동에 소재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였고, 일본에 있어서는 東京·京都지방에 소재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일 여대생 각 200명씩을 무작위 표본 추출 하였다. 조사시기는 한국의 경우는 1997년 5월과 1998년 3월, 일본의 경우는 1997년 5월-9월이다.

설문지는 장상욱(1996)과 임희경(199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공간면적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공간별 주생활행위, 현재와 미래의 기거양식, 현재의 기거양식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설문지 작성시에는 가족과 기거하는 주택에서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났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빈도, 백분율,  $\chi^2$ -검증, t-test를 하였다.

## 2. 연구결과 및 분석

### 2.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가족 수는 한국의 경우 5인 가족이 43.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가족 수는 4.97인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4인 이하의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가족 수는 4.71인이다. 따라서 한국 여대생들의 평균 가족 구성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형태는 양국 모두 대부분 핵가족의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 확대가족의 비율이 한국에 비해 다소 높게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여대생들의 평균 거주년수는 6.3년으로 나타났지만, 일본 여대생들은 평균 13.6년으로 상대적으로 한국 여대생들에 비해 거주년수가 길었다. 주택소유 형태는 한국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81.5%로 높은 반면에 일본은 82.8%가 집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방소유는 한·일 여대생들 모두가 약 90%의 소유율을 나타내며, 그 형태는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양국에서 모두 많았지만, 일본 여대생에 비해 한국 여대생들의 공동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 豊かな住生活を考える會, 日本の住宅がわかる本, 1994

8) 윤장섭, 한국건축연구, 동명사, 1984

9) 장상욱, 상계서, 1996

10) Hohm, C. F., Expectations for Future Home Ownership, Housing and Society, 10, 1983

\*) 伊藤의 연구(1989)에 따르면, 남편의 기상 재택시간은 약 3시간 30분 정도이며, 아내는 6시간 이상으로 남편의 2배 정도이다.

<표 1> 일반적인 사항\*

N (%)

변인	구분	한국	일본
가족수	4人以下	65 (32.5)	99 (49.5)
	5인	86 (43.0)	60 (30.0)
	6人以上	49 (24.5)	41 (20.5)
	평균	4.97 인	4.71 인
가족 형태	핵가족	181 (90.5)	141 (70.5)
	확대가족	19 ( 9.5)	55 (28.1)
주거 형태	독립주택	102 (51.0)	161 (80.5)
	공동주택	98 (49.0)	39 (19.5)
거주 연수	1년 미만	29 (14.5)	16 ( 8.0)
	1-5년 미만	72 (36.0)	26 (13.0)
	5-10년 미만	53 (26.5)	34 (17.0)
	10년 이상	46 (23.0)	124 (62.0)
	평균	6.3 년	13.6 년
주택소유 형태	부분임대	25 (13.2)	31 (16.1)
	집전체 임대	10 ( 5.3)	159 (82.8)
	자가**	154 (81.5)	2 ( 1.0)
방소유 형태	혼자 사용	120 (60.3)	171 (96.1)
	공동 사용	79 (39.7)	7 ( 3.9)

\* missing value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이하 모든 표에 적용.  
 \*\* 용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함.

## 2.2. 각 공간의 면적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거주자의 기거양식은 주거공간의 면적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11)(12). 따라서 주거공간의 면적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거내의 각 공간의 면적에 대하여 5점 리커트식 측정으로 평가와 만족도를 알아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공간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장소	점수 (M)	면적의 평가			면적의 만족도		
		한국	일본	t-value	한국	일본	t-value
집 전 체	3.08	2.93	1.909	3.17	3.03	1.563	
거 실	2.81	2.83	- .290	3.00	3.05	- .533	
부엌 / 식당	2.82	2.71	1.315	2.90	2.85	.497	
침 실 1	3.37	2.86	6.730***	3.35	3.01	3.930***	
침 실 2	3.04	2.79	3.653***	3.13	2.98	1.578	
침 실 3	2.50	2.94	-5.933***	2.76	3.04	-2.973**	
욕 실	2.60	2.79	-2.289*	2.73	2.96	-2.256*	
다 용 도 실	2.87	2.57	.031	2.83	2.75	.735	
발 코 니	2.79	2.89	- .957	2.95	2.98	- .233	
전 체	2.90	2.86	.586	3.03	3.01	.229	

\* p<.05 \*\* p<.01 \*\*\* p<.001

\*\* 부부가 거주하는 공간을 침실1로 규정하고, 침실2와 침실3은 면적에 따라서 중간방과 작은방으로 칭함.

집전체에 대한 면적평가는 한국에 비해 일본 여대생들이 좁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침실1과 침실2에 대해서는 일본의 여대생이 한국의 여대생보다도 좁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침실3과 욕실공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도 좁다고 평가하였다.

면적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여대생이 일본의 여대생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침실1과 침실3 그리고 욕실 공간의 면적에 대한 만족도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침실1에 대해 높은 면적평가를 한 한국 여대생들이 면적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본 여대생에 비해 높았으며, 침실3과 욕실의 면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여대생들이 한국 여대생보다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2.3. 각 생활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일상적인 주생활 행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생활행위를 공동생활행위, 개인생활행위, 가사노동행위, 생리위생행위로 나누고 이를 다시 <표 3>과 같이 12가지의 행위로 분류하였다. 세탁물 정리를 제외하고 모든 행위에서 한일 양국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공동생활행위 중 단란과 식사행위는 주로 거실과 부엌/식당의 두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웃·친구접대의 행위는 거실과 각 침실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의 경향은 유사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단란의 행위가 거실과 침실1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거실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의 단란공간에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아직도 한국의 침실1은 부부침실이라는 개인공간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사용하는 공동공간의 성격이 다소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윤복자 외(13)는 안방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와 만족도가 연령에 다르다고 하였으며, 특히 20대에 비하여 30대 이상은 안방의 요소 중에서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사행위는 한국의 경우 부엌/식당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있으나 거실이나 침실1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침실1에서의 식사행위는 일본에 비해 5배가 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장상옥, 1996)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의 사용측면에서 연구한 연구결과(임소연, 1995)와도 유사하다. 반면,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거실에서의 식사행위가 3배 이상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웃과 친구의 접대시 한일 양국 모두 거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침실1(21.1%)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개인생활행위 중 휴식은 양국인 모두 침실1, 거실, 침실2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 여대생은 이 세 장소에서의 비율이 비슷하나 일본 여대생은 거실에서의 휴식이 5할을 넘는다. 이는 한·일 양국인 모두 자기방 소유율이 매우 높으므로 침실2나 침실3이 자기방이다. 그런데 한국은 자기방(침실2 또는 침실3)과 침실1, 거실에서의 휴식비율이 비슷하나 일본은 자기방(침실2 또는 침실3)

11)김미희,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 연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1

12)장상옥 외, 서울지역 거주자의 기거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1995, pp.27-30

13)윤복자·최형선·조명은, 실내공간계획에 대한 신세대의 주거기대와 주거 선호, 한국주거학회지 제9권3호, 1998

<표 3> 각 생활행위가 행해지는 공간

N(100%)

행 위	공 간		거 실	부엌/식당	침실 1	침실 2	침실 3	욕 실	다용도실	발코니	전체	비 고
	한국	일본										
공 생 활 위	식 사	한국	21(10.6)	143(72.2)	34(17.2)						198	χ <sup>2</sup> =49.579***
		일본	72(36.4)	120(60.6)	6( 3.0)						198	
	단 란	한국	103(53.6)	7( 3.6)	82(42.7)						192	χ <sup>2</sup> =70.801***
		일본	167(85.6)	16( 8.2)	12( 6.2)						195	
	이 친 접	한 국	122(61.3)		42(21.1)	28(14.1)	7( 3.5)				196	χ <sup>2</sup> =11.460*
		일 본	127(69.4)	6( 3.3)	18( 9.8)	22(12.0)	10( 5.5)				183	
개 인 활 위	휴 식	한국	58(29.4)		72(36.5)	57(28.9)	10( 5.1)				197	χ <sup>2</sup> =23.145***
		일본	100(53.5)		44(23.5)	38(20.3)	5( 2.7)				187	
	독 서	한국	14( 7.3)			33(17.3)	144(75.4)				191	χ <sup>2</sup> =46.344***
		일본	49(27.4)			55(30.7)	75(41.9)				179	
가 사 동 행 위	세탁기빨래	한국						97(51.1)	58(30.5)	35(18.4)	190	χ <sup>2</sup> =14.282***
		일본						77(46.7)	76(46.1)	12( 7.3)	165	
	손 빨 래	한국						130(78.3)	22(13.3)	14( 8.4)	166	χ <sup>2</sup> =30.994***
		일본						72(61.5)	45(38.5)		117	
	세탁물건조	한국						11( 6.8)	20(12.3)	131(80.9)	162	χ <sup>2</sup> =16.315***
		일본						31(20.7)	26(17.3)	93(62.0)	150	
	바 느 질	한국	69(35.9)		105(54.7)	18( 9.4)					192	χ <sup>2</sup> =22.511***
		일본	108(60.3)		63(35.2)	8( 4.5)					179	
	다 림 질	한국	76(39.6)		87(45.3)	23(12.0)	6( 3.1)				192	χ <sup>2</sup> =27.621***
		일본	109(59.2)		52(28.3)	7( 3.8)	16( 8.7)				184	
세탁물정리	한국	118(65.6)		50(27.8)	12( 6.7)					180	χ <sup>2</sup> =4.650	
	일본	98(56.3)		67(38.5)	9( 5.2)					174		
생리·위생 행 위	화 장	한국	9( 4.5)		81(40.7)	77(38.7)	33(16.1)				199	χ <sup>2</sup> =60.513***
		일본	51(26.4)		59(35.7)	55(33.7)	28(15.3)				193	

\* p<0.05 \*\* p<0.01 \*\*\* p<0.001

에서의 휴식보다 거실에서 휴식비율이 월등히 많음을 시사한다. 독서행위는 한국 여대생은 침실3서 7할이 넘는 비율로 행하고 있으나, 일본 여대생은 침실3, 침실2, 거실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사노동행위 중 세탁기에 의한 세탁행위는 한·일 여대생 모두 욕실과 다용도실(후면발코니)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코니에서의 세탁은 한국의 경우가 일본보다 2배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손빨래는 한·일 모두 욕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나, 다용도실의 사용이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약 3배정도 많다. 세탁물 건조는 한·일 양국 모두 주로 발코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면발코니는 주로 남향을 향하고 있어 일광건조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선택되고 있지만, 전면발코니는 아파트의 전면에 위치하여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므로 실내에서의 미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일본은 욕실에서의 세탁물 건조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3배가 넘는다는 점이다. 이는 의류건조기의 보급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가전기기의 보급에 따라 세탁물 건조 장소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바느질과 다림질은 한국 여대생은 침실1에서, 일본 여대생은 거실에서 가장 많이 행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세

탁물 정리는 양국인 모두 거실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가사노동행위의 장소를 보면 한국에서는 침실1을 일부 가사노동공간으로 전용하고 있어 의류관련 가사행위를 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생리위생행위에서 화장은 침실1을 중심으로 개인공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여대생의 경우에는 한국 여대생에 비해 거실공간에서 화장하는 경향이 6배나 높았다.

## 2.4. 생활행위별 기거양식

7종류의 주생활행위의 현재와 희망하는 기거양식을 '항상 좌식을 한다'를 1점에서 '항상 입식을 한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기거양식은 한국이 평균 2.88점, 일본이 평균 2.95점으로 입식과 좌식의 중간정도이며 희망하는 기거양식은 한국이 평균 3.59점, 일본이 평균 3.41점으로 현재보다 입식화가 조금 진행된 기거양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행위별에 따른 현재의 기거양식을 보면 한국의 경우는 목욕→공부→식사→취침→화장→휴식→단란행위의 순으로 입식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취침→공부→식사→화장→목욕

<표 4> 현재와 희망하는 기거양식

행 위	현 재			희 망		
	한 국	일 본	t-value	한 국	일 본	t-value
식 사	2.91	3.37	-2.940**	3.93	3.78	1.195
단 란	2.04	2.19	-1.178	3.15	3.01	1.210
취 침	2.90	3.70	-4.565***	3.69	4.09	-2.756**
공 부	3.63	3.67	-.319	4.16	3.99	1.391
휴 식	2.17	2.33	-1.220	2.86	2.98	-.996
화 장	2.76	3.09	-1.863	3.97	3.99	-.176
목 욕	3.77	2.53	9.630***	3.47	2.11	11.179***
전 체	2.88	2.95	-.882	3.59	3.41	2.442*

\* p<.05 \*\* p<.01 \*\*\* p<.001

→휴식→단란행위 등의 순으로 입식화 경향이 나타났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식사와 취침의 행위에서는 일본 여대생의 입식화 점수가 높았고, 목욕행위에 있어서는 한국 여대생의 입식화 점수가 높았다.

주생활 행위시 희망하는 기거양식은 한국 여대생들이 공부→화장→식사→취침→목욕→단란→휴식 등의 순으로 입식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 여대생들은 취침→공부·화장→식사→단란→휴식→목욕 등의 순으로 보이고 있다. 양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 취침행위는 일본 여대생들이, 목욕행위는 한국 여대생들이 입식화를 더 원하고 있었다.

한·일여대생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기거양식 중 좌식화의 점수가 큰 행위는 단란행위이다. 사와다(澤田知子)<sup>14)</sup>는 일본인들이 응접세트를 일단 가정에 도입 후 입식생활을 하다가 처분하고 다시 좌식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런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주부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sup>15)</sup>에서 거실에서 좌식의 비중이 높은 절충형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결론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 있어서 취침에 대한 기거양식의 연구결과<sup>16)</sup>에서 취침행위의 6년간의 변화추이는 전체적으로 좌식에서 좌식과 입식의 비율이 비슷하게 병존하는 절충형으로 이행하였는데, 10대와 20대는 좌식에서 입식으로 진행하였고, 30대와 40대는 좌식이 감소하여 입식을 절반 정도 수용한 단계이었으며, 50대이상은 여전히 좌식을 고수하였다. 그러므로 50대이하의 연령대는 현재와 장래 모두 입식율이 증가하여 취침양식의 입식화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연구결과 중 연령에 상관없이 침대사용의 경험이 침대지향의 정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17)</sup>.

14)澤田知子, ユカ坐イス坐-起居様式にみる日本住宅のインテリア史-住まいの圖書館出版局, 1995

15)임소연, 거실공간에 있어서의 가구사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 영남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95

16)장상욱·신경주, 대도시 지역 거주자의 기거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6권, 1995

17)今井範子, 住様式からみた住宅平面に関する研究, 京都大學位論, 1986

7종류의 주생활 행위 중 목욕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의 기거양식이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 좌식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목욕행위는 한국 여대생의 입식화가 더 높으며, 희망 기거양식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주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영심 외, 1998; 윤정숙 외, 1997)와 비슷한 결과로서 샤워기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반면 양국인 모두 현재의 기거양식보다 희망 기거양식에서 보다 더 입식화를 원하고 있으나 일본 여대생들의 욕조사용에 대한 요구도만은 현재 보다 더 높게 나타나 좌식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좌식회귀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와다<sup>18)</sup>는 1990년대 일본의 기거양식의 흐름은 좌식에서 입식으로 가는 과도기가 아니고 입식과 좌식이 뒤섞인 상태로 화(和)와 양(洋)의 체계가 해체되고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합되어 새로운 기거양식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경향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목욕문화가 한국은 입식화를 일본은 좌식화를 원하고 있어 상이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2.5. 생활행위별 기거양식의 만족도

각 생활행위에 따른 현재의 기거양식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리커트 측정용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양국인 모두 보통(3.0점)을 약간 넘는 만족도를 나타내며 일본 여대생들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만족하는 경향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일 여대생들은 취침의 기거양식에 대해 만족도(3.67점, 3.78점)가 가장 높은 반면에 화장의 기거양식에 대한 만족도(3.40점, 3.42점)가 가장 낮았다.

<표 5> 현재 기거양식의 만족도

행 위	만족도 (M)		
	한 국	일 본	t-value
식 사	3.55	3.67	-1.280
단 란	3.44	3.55	-1.226
취 침	3.67	3.78	-1.108
공 부	3.54	3.68	-1.404
휴 식	3.58	3.55	.296
화 장	3.40	3.42	-.206
목 욕	3.49	3.74	-2.549*
전 체	3.53	3.62	-1.246

\* p<.05

이러한 결과에서 취침행위는 한·일 여대생들이 기거하는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화장행위는 자신의 방보다는 안방이나 거실에서 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자신이 원하는 기거양식보다는 부침실에 기거하는 주부의 양식에 맞추어 화장행위를 해야 하므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각 실의 공간 계획시에는 각 방에서 행해지는 생활행위와 기거양식을 고려하여 실의 면적, 가구나 기기 등에 대해서 함께 계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18)澤田知子, 상계서, 1995

### 3. 결론

앞으로의 기거양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공간계획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한·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기거양식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주거공간의 면적평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본 여대생들이 한국 여대생들에 비해 좁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침실1과 침실2에 대해서는 일본 여대생들이 좁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만족도에 있어서는 한국 여대생들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침실3과 욕실공간에 대해서는 한국 여대생들이 좁다고 평가했으며, 만족도에 있어서는 한국 여대생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욕실의 크기를 일본에서는 개실(個室)의 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겠다.

2. 각 생활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보면, 단란과 식사행위는 주로 거실과 부엌/식당의 두 공간에서 행하고 있으며, 집객행위는 거실과 각 침실공간에서 행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생활행위 중 휴식은 한국 여대생들이 침실1에서 대부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여대생들의 휴식행위는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서는 모두 침실3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생활행위의 대부분을 행하고 있는 거실과 침실1의 공간에 대해서 적절한 면적과 배치 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한국은 침실1이 가족실의 개념에서 부침실의 기능으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다양한 생활행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겠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다양한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실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사노동행위는 주거공간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을 사용하는 빨래행위 외의 대부분의 생활행위가 거실과 침실1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곳의 충분한 크기 확보와 다양한 생활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계획을 하여야 하겠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욕실공간이 생리·위생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행위의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욕실공간 계획시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다용도실에 있어서 세탁행위 비율도 양국 모두 높으므로 세탁행위와 다목적행위를 고려한 작업대 설치와 배수문제를 고려한 세탁기 설치장소가 계획되어야 하겠다. 즉, 이 두 공간에 있어서 충분한 공간크기 확보, 작업대 설치, 급배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생활행위별에 따른 현재의 기거양식은 한국의 경우 목욕→공부→식사→취침→화장→휴식→단란행위의 순으로 입식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취침→공부→식사→화장→목욕→휴식→단란행위 등의 순으로 입식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행위별 희망하는 기거양식은 한국 여대생들이 공부→화장→식사→취침→목욕→단란→휴식 등의 순으로 그리고 일본 여대생들은 취침→공부·화장→식사→단란→휴식→목욕 등의 순으로 입식화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일 여대생들의 기거양식에 대한 의식은 현재보다 미래의 입식 희망율이 더 높아서 앞으로 입식이 더욱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한 공간과 기기의 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여대생들의 현재의 취침형태는 입식화 경향이 강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입식의 요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녀방에 있어서 침대의 사용으로 인해 침실면적이 좁아지지 않도록 주거공간 계획시 유의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일본 여대생들의 현재 기거양식 중 취침시 입식화가 다른 생활행위에 비해 가장 높으며, 희망정도도 가장 높으므로 미래에도 침대를 선택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개실(個室)의 면적산정을 좌식이 아닌 입식형에 맞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 나라의 주거공간 내에서 욕실공간은 목욕보다는 샤워위주의 공간으로 샤워부스의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욕실공간을 디자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차문화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주택에서의 여대생의 기거양식을 살펴보았으며, 양국간의 동질성과 상이점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기거양식의 연구대상을 확대시켜 체계적인 자료를 얻는다면 주택산업이나 디자인의 수출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문화적 측면에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기거양식이 나 우리와 전혀 다른 기거양식을 가진 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수행하여 국제화 추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겠다.

### 참고문헌

1. 임소연, 거실공간에 있어서의 가구사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 이영심·신경주, 아파트 거주자의 욕실에 대한 의식·만족·요구, 한국 주거학회지 제9권1호, 1998
3. 윤정숙·전영미·김수경, 욕실공간 계획을 위한 감성공학적 접근, 대한 가정학회지 제35권3호, 1997
4. 윤복자·최형선·조명은, 실내공간계획에 대한 신세대의 주거기대와 주거선호, 한국주거학회지 제9권3호, 1998
5. 장상옥,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6
6. 任喜敬, 韓國都市集合住宅の住様および住空間に関する研究, 奈良女子大學博士學位論文, 1995
7. 澤田知子, ユカ坐イス坐 起居様式にみる日本住宅のインテリア史 住まいの圖書館出版局, 1995
8. 住田昌二, 現代住居論, 光生館, 1984
9. 伊藤セツ・天野寛子, 生活時間と生活様式, 光生館, 1989

<접수 : 1999. 7. 28>